

손흥민 유로파리그 3호골 정조준

토트넘 내일 루도고레츠와 조별리그 3차전
해리 케인·개러스 베일 조합 승리 견인 관심

최근 두 경기에서 득점 행진을 멈춘 손흥민(28)이 2020-2021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3호 골을 정조준한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잉글랜드)은 6일 오전 2시 55분(이하 한국시간) 불가리아 라즈그라드의 루도고레츠 아레나에서 루도고레츠(불가리아)와 UEFA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J조 3차전 원정 경기를 치른다. 지난달 23일 조별리그 1차전에서 LASK(오스트리아)를 제압했던 토트넘은 일주일 뒤 2차전에서 앤트워프(벨기에)에 0-1로 져 조2

위(승점 3)에 올랐다. 앤트워프전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했다가 충격 패를 당한 토트넘은 조 최하위에 자리한 루도고레츠(승점 0)와 3차전에서 만회를 노린다. 손흥민(S), 해리 케인(K)과 9월 토트넘으로 돌아온 개러스 베일(B)로 이루어진 'KBS 트리오'가 최전방에서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지 관심이 쏠린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손흥민이 득점 공동 1위(8골), 케인이 공격

포인트 1위(14개)를 달리는 가운데, 2일 정규리그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과 7라운드에서는 베일까지 복귀 골을 쏘아 올렸다. 다만 이번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9경기에서 10골(정규리그 8골·유로파리그 예선 1골·본선 1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최근 두 경기에서 득점이 없다. 유로파리그 앤트워프전에서 후반 교체 투입됐으나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EPL 브라이턴전에서는 선발로 출전해 후반 40분 교체될 때까지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눈에 띄는 활약은 없었다. 정규리그와 유로파리그에서 4경기 동안 이어온 연속골 사냥은 마무리했지만, 이번 경기에서 다시 한번 공격포인트를 쌓는다면 초반 '반짝 활약'에 그치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조제 모리뉴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의 체력 안배를 위해 유로파리그 1, 2차전에서 그를 후반 교체 투입했다. 이달 8일 웨스트 브로미치 앨비언과 EPL 8라운드를 앞두고 있어 손흥민은 이번에도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로테이션을 가동한 앤트워프 전 패배 뒤 모리뉴 감독이 "11명을 모두 교체하고 싶었다. 오늘 이후로 나의 선택은 매우 쉬워질 것"이라며 주전 멤버 위주로 팀을 꾸리겠다고 시사한 만큼 언제든 그라운드에 투입될 수 있다. 손흥민이 루도고레츠를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하면 유로파리그 3호 골이자 시즌 11호 골을 작성하게 된다. /연합뉴스



손흥민



볼 컨트롤하는 마르티네스 인터밀란(이탈리아)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4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에스타디오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에서 열린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의 2020-2021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볼을 컨트롤하고 있다. 인터밀란이 2-3으로 패했다. /AP-연합뉴스

동강대 U리그 '2연승' 이종영 2경기 연속 골

동강대학교가 2020 U리그에서 2연승을 달렸다. 동강대는 지난 3일 보라매3구장에서 열린 U리그 조선이공대와 조별 4차전에서 후반 26분 이종영(2년)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지난달 7일 원광대와 첫 경기에서 0-0으로 비기고 14일 전북호원대에 0-2로 패했던 동강대는 지난달 30일 전남과학대전 1-0 승리 이후 이날 연승을 이어갔다. 이종영은 전남과학대와 경기에서의 결승골에 이어 이날도 결승골의 주인공이 되며 2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2승1무1패가 된 동강대는 오는 6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한려대를 상대로 3연승에 도전한다. 올해 대학축구 U리그는 총 82개 팀이 9권역으로 나뉘어 승부를 펼치며 권역별 1-3위가 왕중왕전에 진출한다. 권역별 4위 팀 중 성적 상위 4개 팀도 왕중왕전 진출권을 획득한다. 동강대는 올 U리그에서 원광대를 비롯해 전북 호원대, 전남과학대, 조선이공대, 한려대, 군장대, 전주기전대, 동신대 등과 5권역에 편성됐다. /최진화 기자

K리그 엠블럼 바뀐다

연맹, 오늘 대상 시상식서 공개

K리그를 대표하는 얼굴인 엠블럼이 8년 만에 바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5일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 대상 시상식 2020'에서 2021시즌부터 사용될 K리그의 신규 엠블럼과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K리그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리그의 지향점 및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K리그 브랜드 리뉴얼 프로젝트'를 지난해 말부터 진행해왔다. 그동안 연맹은 K리그의 현재 브랜드 가치 진단을 위해 전문 조사기관의 정량 조사를 거쳤고, K리그 주요 타겟층 파악 및 K리그의 가치, 지향점 수립 등 작업을 진행해 이번 신규 엠블럼과 BI를 선보이게 됐다. K리그의 새로운 엠블럼과 BI가 공개되는 '하나원큐 K리그 대상 시상식 2020'은 5일 오후 3시 서울 흥동 스퀘어호텔에서 개최되며, K리그 주관방송사 JTBC GOLF & SPORTS와 네이버, 다음카카오, 아프리카 TV, 트위치, Sezn, 스왓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생중계된다. 연맹은 이번 시상식에서 신규 엠블럼과 BI를 소개하는 영상을 생방송할 예정이다. 또한 공식 시상식 종료 후에는 K리그 브랜드 리뉴얼 프로젝트 결과 프레젠테이션 및 신규 BI 사용 가이드라인 소개 등도 진행된다. 신규 엠블럼은 2021시즌부터 사용되며, K리그 중계방송 그래픽과 각종 제작물, 상품 등에 적용된다. 연맹은 앞으로 K리그의 새로운 BI를 담은 브랜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디자인 및 그래픽 활용을 통일하고, K리그의 확고한 브랜드 가치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진화 기자

영암서 튜닝카 레이싱 열린다 14-15일 국제자동차경주장

2020 영암 튜닝카 레이싱대회가 오는 14-15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대한모터스포츠협회가 영암군의 후원을 받아 개최하는 2020 영암 튜닝카 레이싱대회는 모터스포츠 발전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종합대회 형식의 레이싱대회다. 특히 이번 대회는 '드래그레이싱', '드리프트', '집카나', '튜닝카 전시회' 등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된 경주장 곳곳에서 레이싱문화를 즐길 수 있는 축제형 대회로 운영된다. 전국에서 300여대가 참가할 예정이다. 14일에는 목포 평화광장에서 드리프트 쇼런(SHOW-RUN)과 카트 쇼런(SHOW-RUN), 레이싱모터 포토타임 등 다양한 홍보 행사가 진행된다. 15일에는 드리프트 및 집카나 택시 타임, 튜닝카 전시회, '포퓰러 VS 레디컬' 등 다양한 이벤트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조성철 대한모터스포츠협회장은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으로 진행되지만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모터스포츠협회는 광주 자동차산업 발전과 모터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7월 2021 광주 튜닝카 페스티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최진화 기자

비아중 김찬송·김재훈 금빛 레이스

김찬송 허들 금 200m 은
김재훈 포환·창던지기 금

비아중학교 김찬송(3년)과 김재훈(2년)이 최근 충북에서 열린 제1회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년별육상경기대회에서 금빛 레이스를 펼쳤다. 김찬송은 여중3학년부 100m허들에서 금메달을, 2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100m허들은 혼자 출전해 우승을 차지했다. 기록은 15초23. 지난해 소년체전에서 자신의 기록(15초73)을 앞당기는 성과를 냈다. 200m에서는 27초19로 결승선을 통과, 강수연(월촌중·26초60)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3위는 황보라(홍성여중·27초34)였다. 김재훈은 남중2학년부 포환던지기과 창던지기에서 우승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김재훈은 포환던지기에서 16m29를 기록, 김택민(거제중앙중·15m57), 정유빈(경기신원중·14m13)을 제치고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김재훈은 월계초 6학년때인 2018년 소년체전 포환던지기에서 13m69로 동메달을



비아중학교 김찬송(오른쪽)과 김재훈이 최근 충북에서 열린 제1회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년별육상경기대회에서 각각 금메달1개와 은메달1개, 금메달2개를 획득했다. /비아중 제공

획득했고, 지난해 소년체전에서는 1학년임에도 중등부 경기에서 15m74를 기록하며 6위에 올랐었다. 창던지기에서도 금빛 행진이 이어졌다. 김재훈은 창던지기에서 58m55를 던져 최재노(익산지원중·55m94), 오준석(조치원중·50m93)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다. /최진화 기자